

고양 1999 기록 남기기

도시 개발 이전의 모습을 사진, 지도, 원고로 보존

● 22년 전 고양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다

이 사업은 1999년 당시의 39개 동 전체에 대한 민속과 풍습, 지명유래, 역사와 사건 등을 현장조사한 후 보고서를 완성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22년 전 고양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농촌과 자연촌락, 산자락이 지금보다는 훨씬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토박이 원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어 고양의 마을과 기록을 상세하게 남길 수 있었다.

● 현장을 걸으며 기록한 소중한 자료

조사현장을 걸으며 수집한 마을 자료들은 주민들의 사진과 함께 첨부해 보존하고 있다. 경로당에서, 들판, 밭에서 만나 작은 논 이름이나 밭 이름까지 남겨두었다. 조사된 내용들은 원고와 마을 약도(지도), 일부는 녹음까지 채록하였다. 조사는 지금의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포함하여 각 행정동과 법정동

1999년 고양시는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일산신도시 이후 또 다른 도시화 개발 사업에 대비하여 고양시 마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일명 '고양 1999'이다.

글. 사진. 정동일(고양시 역사문화재 전문위원)



1. 원고와 사진, 약도(지도), 손그림으로 그려진 고양 1999 자료들
2. 일산서구 대화마을의 옛 모습

고양 1999

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당시 동사무소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장소에서 마을의 현황을 알아보고 팀을 나누어 우물, 산신제 장소, 징검다리, 수호목, 역사적인 장소 등을 찾아가 사진과 약도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개발되기 이전의 덕이·가좌·풍동·삼송·지축·덕은·향동·도래울 마을 등이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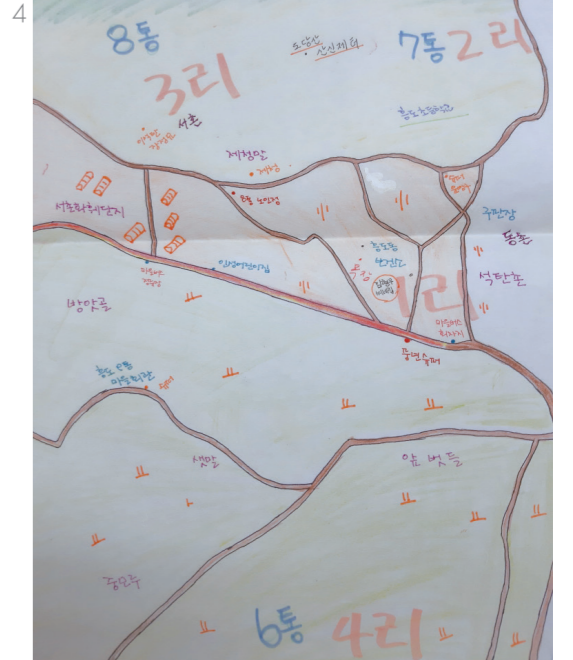
1999년 이후에 개발이 이루어진 대화, 덕이, 삼송, 지축, 도래울 등은 결국 20세기 마지막 자연촌락, 마지막 조사가 되고 말았다. 지금은 상가와 아파트촌, 공원, 도로로 바뀐 도시가 그 당시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비가 자라는 논, 배추와 감자가 심어진 밭이 대부분이었다. 주민들은 한여름이면 큰 정자나무, 그늘에 모여 장기를 두거나 이야기꽃을 피우며 하루를 보냈다. 고양 1999년도의 흔한 풍경이었다.

● 조사된 내용은 학교명, 공원명, 도로명, 책자로 발간 예정

마을사로 수집된 자료들은 워낙 분량이 방대한 데다 현재의 모습과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고양시는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덕은지구에 대한 자료 정리에서는 증언과 사진을 통해 지금은 사라진 일제 강점기의 기관고(機關庫)와 쌍굴, 아파트 개발로 사라진 원골과 샘밭 그리고 빌라 등으로 모습이 크게 바뀐 산동네, 유곽골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고 있다. 정리된 자료는 고양시 향토사 기록으로 후대에 남길 예정이며 원래 있던 지명들을 학교, 도로, 공원 명칭 등으로 활용하여 길이 보존할 계획이다.

● 고양시의 20세기 마지막 기록이 될 고양 1999

고양 1999 사업은 결국 20세기의 마지막 마을 기록이 되고 말았다. 21세기에 들어 고양시는 계속되는 도시화 사업으로 당시의 모습과는 크게 달라졌다. 송포쌀로 유명했던 대화, 가좌에도 단독주택을 대신해 아파트가 지어졌고 김씨, 원씨, 장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던 도내동 도래울 마을에는 원흥 도래울 마을이 생겼다. 과수원과 넓은 들판이 있던 통일로 변에는 신원마을이, 창릉천 주변 넓은 마을과 밭이 있던 곳에는 삼송마을이 들어서 인구도 100만이 훌쩍 넘어서게 되었다. 앞으로도 개발된 지역을 포함하여 창릉신도시, 일산 장항동 일대 등 개발 예정지에 대한 학술조사와 함께 마을 조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



3. 덕은동 쌍굴의 하굴

4.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린 마을 약도(원흥 도래울 마을)